

2007년에는 금 · 옥수수에 투자하라!

JP 모건, 대체에너지 부상에 달러화 약세 불가피 ... 석유 투자는 위험

2007년에는 원자재 가운데 금과 옥수수가 최고의 투자상품이 될 것이라고 미국 투자은행 JP 모건 체이스가 전망했다.

JP 모건은 12월7일자 원자재 시장동향 분석에서 옥수수가 밀과 함께 곡물 가운데 2007년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재고가 지난 20년 이상 사이 최저수준이라고 상기시켰다. 옥수수는 대체에너지 에탄올 수요가 급증하는 점도 가격강세의 주요 변수로 지적됐다.

옥수수 가격은 2005년 미국의 작황 부진과 에탄올 수요가 늘어난데 자극받아 83% 상승했으며 밀은 67% 가량 가격이 뛰었다.

JP 모건은 옥수수가 2006년 부셸당 2.51달러에서 2007년에는 평균 4.03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밀도 3.95달러에서 5.13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은 2007년 공급이 1% 밖에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에 따른 외환펀드 쪽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가격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JP 모건은 예측했다.

금값은 2006년 온스당 평균 605달러에서 2007년에는 678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07년도 예상가격은 JP 모건이 앞서 내놓은 수준보다 11% 상향조정된 것이다.

금은 2008년에도 강세가 이어져 온스당 725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역시 JP 모건의 앞서 추정치보다 13% 높은 수준이다.

반면, 석유는 재고 증가에 따라 “최악의 원자재 투자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JP 모건은 예측했다.

JP 모건은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는 250개 전문펀드들이 약 530억달러 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11>